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히브리서 11:6-7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 장 강해의 4 번째 순서로서, 아벨과 에녹에 이어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 11:7)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비가 그치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이제 배에서 나가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창 8:12-14)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2. 노아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을 때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마리씩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일곱 마리씩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께 그리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 더 태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방주'라고 하는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동물들의 오물로 인해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노아는 그 방주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도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비록 방주 안이 답답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이 바로 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첫째, 잘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 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 5:1)

성경은 잘 듣는 것이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즉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브쉬미즈' 입니다. 이 말은 '듣는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듣는 마음'과 '지혜'는 동의어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지혜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서 들을 때 변화도

일어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 15:8)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며 그 분 한분을 마음 중심에 담아 예배해야 합니다. 겉으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 8:20-21)

아담과 하와의 때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기에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사는 정결한 짐승을 통한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그 것으로 인해 온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셨던, 그 진노의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지만,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시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사회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 역시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기 전까지 무려 12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그 긴 시간동안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때가 되면 닫혀 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능력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성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설교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어떤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2. 노아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예배일까요? 밑줄 부분을 참고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결단하거나 다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